

# 백도 줄도 돈도 안 통한다 BTS, 공연문화를 바꾸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티켓은 이제 불법과 편법으로는 구매할 수 없다. 팬들에게 공정한 관람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 내가 왜 떴게?

가인이네 시골집이야~



송가인

●송가인, 인기실감 : 전국에 불고 있는 트로트 열풍의 한 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인물이 있으니, 다름 아닌 송가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해 일약 트로트 스타로 급부상하는 한편 째네 나는 인생역전의 스토리로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송가인은 최근 진행된 녹화 방송에서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시골집이 관광객이 돼 주말이면 200명까지 방문한다"고 해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다. 시골집을 방문하는 팬들을 위해 송가인의 아버지가 특별한 선물도 제공하고 있다고, 일본여행 취소한 김에 송가인 시골집이나 구경하러 가볼까.

내 입술이 보약이오



장영란(오른쪽)·한창 부부

●장영란 부부, 아직도 신혼 : 2009년 결혼한 방송인 장영란, 한의사 한창 부부가 달달한 일상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바람 많은 재주돌을 방문한 두 사람. 바람이 장영란의 머리를 흠뻑려 놓자 남편 한창이 입술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이야. 장영란은 환한 미소를 짓는 사진 아래에 "오늘은 스타그램"이라는 문구를 달아 놓았다. 보기 좋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보약 한 첩보 다났겠네요.

값은 사람이 더 멋지네



우현

●우현, 돈 빌려준 사연 : 배우 우현이 30일 방송된 tvN '개똥이네 철학관'에서 안내상, 이정은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연을 털어냈다. 함께 출연한 안내상은 "현이가 돈을 잘 빌려줬다. 나도 2000만원을 빌렸다"고 인정했다. 우현은 "안내상을 뺐을 때 한번에 갚았고, 이정은은 힘들어도 조금씩 꾸준히 다 갚았다"고 했다. 그 세월이 무려 13년이었고, 동료, 후배에게 꽤 돈을 빌려준 우현도 훌륭하지만 어려워도 결국 빌린 돈을 다 갚은 이정은이 너무나 멋지다. 나이 스샷!

본인 아니면 NO...투명한 관람 기회  
아이들도 5단계 인증 통과해야 입장  
신분증 필수...암표땀 통보없이 취소  
"불법거래 차단...새 공연문화 출발점"

'백'도 줄도 안 통한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부정한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공정하고 투명한 콘서트 관람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장하기 위해 전면적인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전의 조치보다 더 강화한 절차를 통해서다. 가요계 등 공연계는 이를 계기로 향후 암표 거래 등 불법의 행태를 근절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방탄소년단은 10월26~27일, 29일 3회에 걸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스타디움 투어 '러브 유

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의 공연을 펼친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31일 공연의 티켓 예매와 관련해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사전 응모 ▲무작위 추첨 ▲단일 예매처 지정 ▲당첨자들 별도 인증 ▲신분증 확인 강화 등 대책을 공개했다.

●아이도 '응모-당첨-인증-예매-좌석확인' 빅히트 측은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람 신청을 받고 1일 추첨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예매사이트 인터넷의 예매 페이지에서 인증 과정을 거쳐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인증된 회원은 반드시 자신의 명의의 ID가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이는 콘서트 현장에서 신분증을 대조하기 위해서다. 직계 가족이나 법정대리인 등 타인의 명의의 ID로 사용해 예매한 입장권과 현장에서 실제 관람하는 사

람과 다를 땀 입장을 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암표를 통한 입장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후 미결제 잔여분이 있는 경우 9월 25일부터 26일 단 이틀간 예매를 진행한다. 팬들이 실명으로 티켓을 모두 구매할 경우 이 같은 예매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암표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콘서트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구매한 티켓의 소유자의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실물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야 콘서트 관람이 가능해진다.

●"공연 문화도 바꿀 수 있을 것"

방탄소년단은 앞서 6월 진행된 부산과 서울 팬미팅에서 일일이 신분 확인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6만 명의 관객이 입장하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모든 관객에 대한 신분 확인하는 절차가 물리적

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방탄소년단은 현장에서 무작위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가요계에서는 불법 티켓 거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지만 이렇다할 방안이 없어 골머리만 앓아왔다.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시도한 강력한 조치 등의 계기로 각 기획사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관련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강태규 대중음악평론가는 "그동안 모든 공연에서 양도나 구매대행이 있었지만 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면서 "특히 매진되는 아이돌 공연에서는 일련의 작업을 거쳐 불법으로 거래되는 과정을 추적해왔고, 올해 특히 방탄소년단이 엄격한 제한을 두면서 공연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부정거래와 개입 등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열 기자 annjoy@donga.com



1 '블랑팡GT 월드 챌린지 아시아'에 출전한 페라리 488 GT3, 포르쉐911 GT3 R, 메르세데스-AMG GT3, 아우디 R8 LMS GT3 2019, 람보르기니우라칸 GT3 EVO 등이 서킷을 역주하고 있다. 2 원메이크 레이싱인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 경기에 출전하는 람보르기니 레이싱카인 '우라칸 슈퍼 트로페오에보'. 5.2L, V10 엔진을 장착해 620마력의 출력을 자랑한다. 3 CJ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메인 클래스인 ASA 6000 클래스에 출전하는 스투카. GM사의 6.2L, V8엔진을 장착해 460마력의 출력을 발휘한다. 사진제공 | CJ슈퍼레이스

## 람보르기니·페라리...슈퍼카들 영암에 뜬다

### 3,4일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2019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라운드가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테마로 3일과 4일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네셔널 서킷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메인 클래스인 'ASA 6000 클래스'를 비롯해 '블랑팡GT 월드 챌린지'의 아시아 시리즈,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의

아시아 시리즈 등 글로벌 슈퍼카들이 출전하는 레이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ASA 6000 클래스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의 공인을 받은 아시아 유일의 인터네셔널 스투카 시리즈다. 레이스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머신들이 보여주는 극강의 스피드를 만끽할 수 있다.

이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슈퍼카들이 트랙을 질주하는 레이스도 기대를 모은다.

'블랑팡GT 월드 챌린지 아시아'에는 페라리 488 GT3, 포르쉐911 GT3 R, 메르세데스-AMG GT3, 아우디 R8 LMS GT3 2019, 람보르기니 우라칸 GT3 EVO 등 5개 사의 슈퍼카들이 출전한다. 양산 모델이 아닌 레이스만을 위해 특수 제작된 전용 차량으로 상세 스펙은 미공개다. 대당 가격은 5억~10억대를 넘나든다.

람보르기니의 레이싱카인 우라칸 슈퍼 트로페오에보로 펼치는 원메이크 레이싱인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 시

CJ 챔피언십 등 글로벌 레이스 축제  
대당 5억~10억 원대 괴물카 총출동

리즈도 이번 주말 영암에서 놓치면 안되는 레이스다. 5.2L, V10 엔진을 장착해 무려 62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는 괴물 슈퍼카들이 무리를 지어 톨링스타트로 레이스를 시작하는 장관을 즐길 수 있다. ASA 6000 클래스는 3일 예선을 거쳐 4일 결승전을 치른다. 블랑팡GT 월드 챌린지 아시아와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는 3일과 4일 각각 예선과 결승을 진행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